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1046-01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제1부** 교육과정의 이해 ..... 1

**I. 교육과정의 이해** ..... 3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제적 근거 ..... 3
2. 교육과정의 수준 ..... 4
3. 교육과정 관련 법령 ..... 7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 9

1. 개정의 배경과 방향 ..... 9
2. 개정의 추진 절차와 과정 ..... 10
3.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 12
4. 총론 문서 체제의 주요 특징 ..... 14

**제2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 19

**교육과정의 성격** ..... 21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22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22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 30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 36

<b>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b>	<b>39</b>
1. 설계의 원칙	39
2. 교수·학습	48
3. 평가	61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64
<b>II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b>	<b>68</b>
1. 기본 사항	68
2.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77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81
4. 특수한 학교	91
<b>IV. 학교 교육과정 지원</b>	<b>95</b>
1. 교육과정 질 관리	95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99
3.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108
<b>참고문헌</b>	<b>119</b>

<b>부 록</b>	<b>123</b>
------------	------------

# 제 1 부

## 교육과정의 이해

I. 교육과정의 이해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 I

## 교육과정의 이해

##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제적 근거

##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의 의미는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지식 또는 그 구성단위의 한 형태인 교과들의 체계로 해석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경험의 총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계획한 교과목이나 학습 내용의 편제나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1954년에 고시된 제1차 교육과정<sup>1)</sup>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의 제2조에서는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2차 교육과정<sup>2)</sup>에서는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 밖의 경험까지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거나, 계획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경험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 더 나아가 학교생활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들도 교육과정으로 개념화해야 한다거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 등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험과 학생이 학습을 통해 경험하는 내용으로 총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2)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

따라서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법제적 근거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개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7.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주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시·도 교육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를 교육부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과정의 수준

교육과정은 주도하는 주체(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학교)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앙에서 결정하고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한정되었다.<sup>3)</sup>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부터 지역

3) 이 시기에도 지역 및 학교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첫째 원칙으로서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준과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여 고시한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기준의 제정과 고시는 과거의 「교육법<sup>4)</sup>」이나 현행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sup>5)</sup>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총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②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③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④ 학교 교육과정 지원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대한 지침 등이 제시된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면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에서 요구되는 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책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의 목표 및 각 교과 지도 내용 선정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범위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내용 이외의 것을 첨가 지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4차와 제5차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 4)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교육법」 155조 1항은 “대학·사범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급수업 시간[수]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5) 교육과정의 명칭은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으나,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등과 같이 개정년도를 밝혀 명명하였다.

## 나. 지역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공통적·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발되며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등 지역·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지역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며 장학, 교수·학습자료,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다.

## 다. 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도 확대되었고, 교육과정의 최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과정의 개발자·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 시설·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 등을 잘 파악하여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를 교과목의 편성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며, 학생의 학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교육과정 관련 법령

교육과정 관련 법령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관련 법령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 관련 법령

교육과정 관련 사항	관련 법령
국가 교육과정 기준 설정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31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법적 기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8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학사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학급편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수업 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수업 시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8조
교류학습,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진급과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초등학교 수업연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교육과정 관련 사항	관련 법령
교과용 도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학생 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교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Ⅱ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 1. 개정의 배경과 방향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요구, 과학 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 등 교육 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개정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학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2016년에 등장한 알파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태환경 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일깨워주었다. 저출산·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함양 등 질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둘째,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성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OECD는 2015년에 교육 정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OECD는 ‘미래학습의 틀 2030’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학습자 주도성(learner agency)’이라는 용어를 통해 개념화하였다. 주도성은 세계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주도성을 갖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설계할 줄 아는 능력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은 OECD의 ‘미래학습의 틀 2030’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특

히 학생들이 책임감과 역량을 갖춘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설계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게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교육과정 분권화 및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개정 시기마다 자율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개선 과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심화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급 간 통합운영학교의 증가 현상 등 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 2. 개정의 추진 절차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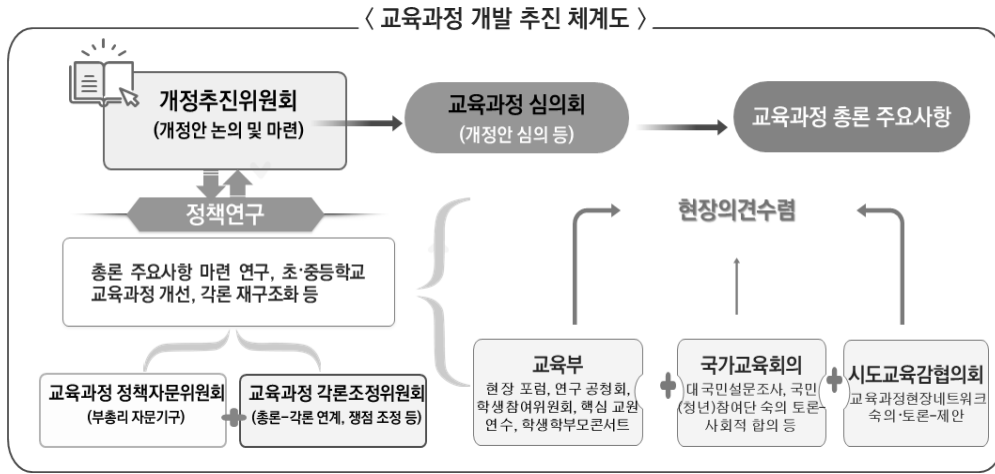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추진 체계를 도입하여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전문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정책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육과정 개발하였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셋째, 일반 국민 누구나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도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부모, 교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및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논의하고, 관계자 및 국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숙의·토론하며, 총론 주요 사항 및 총론 시안 등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문 및 제언을 받을 수 있도록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교과 내용 중복 해소, 이견 조율·조정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의견 수렴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총론 주요사항 관련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전문직 의견 수렴, 교육과정 권역별 핵심교원 연수를 통한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를 통한 의견 수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현장소통 포럼,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학생·지역인사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청년)참여단의 집중 숙의와 쟁점 토론 및 사회적 합의 과정 추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구성 운영, 교원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총론 및 교과별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도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추진된 국민참여형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최초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부록

### 3.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 가.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포용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소양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 등 교육의 전통적인 가치를 요약해 주며, 창의성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소양 등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요약한다. 이에 따라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②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③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④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이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습과 탐구 능력 함양이 요구되며, 교과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 기초소양 함양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주도성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인성과 품성의 함양 등이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주도성, 즉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설계한 진로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의 특성과 요구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그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에 학교자유시간을 도입하여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 사이의 상호 협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원격교육의 확대 및 디지털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였다. 인공지능의 발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원격교육, 수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체제의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평가 및 지도 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운영 및 평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기자재 확충과 교사의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역량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연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 나. 학교급별 주요 개정 내용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화하였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해 국어 시수를 34시간 증배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은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안전교육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였다.

중학교는 자유학기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시수 편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학기의 영역을 기존 4개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170시간에서 2개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 102시간으로 조정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편성 시간은 기존의 3년간 총 136시간(연간 34~68시간)을 3년간 총 102시간(연간 34시간)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에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 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

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학기 단위로 과목 이수과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하고, 선택과목의 증감 범위도  $\pm 1$ 로 개선하여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 융합 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외에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하였다. 공통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구성하며, 일반선택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며, 새로 도입한 융합선택과목은 교과 내 및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 I 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공통과목을 확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구조화하였다.

#### 4. 총론 문서 체제의 주요 특징

##### 가. 총론 문서 구성 방향

교육과정 총론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 문서 구성은 다음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첫째, 총론 문서에 담아야 할 ‘일반적인 기준’의 내용 범위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을 적정화하였다. 학교 교육의 보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되 학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율성 확대의 취지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적성과 진로 계획, 흥미와 관심 등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데 있다는 점을 명료화하였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론 문서 체제(목차, 서술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내용을 서술할 때 유사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범주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위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제시한 후 세부 사항들은 그 하위 항목으로 다룸으로써 지침과 기준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나. 총론 문서 구성의 주안점

### 1)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총론 문서를 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양한 가치와 요구를 반영할 때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로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가치들을 반영해야 할 경우, 교육적 가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이를 기초로 편향성 문제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앞의 두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여러 가치의 세부 항목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사한 가치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총론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치를 교과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총론-각론 사이의 연계를 강화한다.

### 2) 총론 문서의 가독성과 활용도 제고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의 순서를 조정하였는데, 총론 문서의 Ⅰ장에서는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 및 교육목표 등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Ⅱ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 즉 ‘교육적 기준’들을 먼저 제시한 이후, Ⅲ장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IV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제시하되, 업무의 지원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던 방식에서 지원 업무의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총론 문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장별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주요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다.

## 다. 총론 문서 체제의 특징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를 세부적인 목차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목차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b>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b>	⇒	<b>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b>
1. 추구하는 인간상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b>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b>		<b>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b>
1. 기본 사항		1. 설계의 원칙
2. 초등학교		2. 교수·학습
3. 중학교		3. 평가
4. 고등학교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b>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b>	↘	<b>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b>
1. 기본 사항		1. 기본 사항
2. 교수·학습		2. 초등학교
3. 평가		3. 중학교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고등학교
		5. 특수한 학교
<b>IV. 학교 교육과정 지원</b>		<b>IV. 학교 교육과정 지원</b>
1. 국가 수준의 지원	⇒	1. 교육과정의 질 관리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3.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고시문과 교육과정 총론 문서 사이에 위치하였던 ‘교육과정의 성격’을 총론 문서의 일부로 포함하되, 장·절의 번호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진술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문장 진술 형식을 수정하였다.

I 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제1절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어떤 맥락에서 왜 개정이 추진되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는지 설명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서는 개정의 배경과 주안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에서는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문서 내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III장에서 제시되었던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II장에 제시하고 제목을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으로 수정한 것이다. 먼저, 장의 제목을 수정한 이유는 ‘설계’라는 용어가 ‘편성’이라는 용어에 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념화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학교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교과목 시수의 편성’을 넘어서서 ‘학습 경험의 종합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II장 1절의 제목을 ‘기본 사항’이 아닌 ‘설계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II장과 III장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몇 가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총론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국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후,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방향 및 교과별 시수 편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총론의 II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의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교육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III장은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원칙들을 총론 문서의 앞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II장과 III장의 위치 변경의 한 가지 이유가 된다.

III장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장에서 ‘편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제시된 ‘법적’ 기준들이 대체로 교과목 시수의 편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1절에서는 모든 학교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2~4절은 학교급별 편성·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며, 5절은 특수한 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IV장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지침들은 국가와 교육청 등 지원 주체별로 제시되었던 것을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 내용의 영역별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제 2 부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 교육과정의 성격

-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Ⅱ.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Ⅲ.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 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 라.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지역사회,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와 시·도 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즉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유지하되, 문장의 진술 형식에서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나 교육의 변화 방향보다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법적 지위나 역할이 드러나도록 진술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포함해야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I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나.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 마.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 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첫 장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순서와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1절로 제시하였다. 이는 본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구성의 중점을 먼저 설명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사회의 변화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해지고,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 요구와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 나. 교육과정 구성 중점

-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 나.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 마.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 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본질이 교육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교육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사

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비전은 변화할 수 있으나, 그 기저에 놓인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은 교육과정의 중점 내용으로서 바탕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 ●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포용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소양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의 함양 등과 같은 교육의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한다. 창의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중 하나이자, 경쟁력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로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한편 주도성은 자주성, 자기관리 역량, 자율성 등의 개념에 더하여 공적인 책임 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교육의 개인적 측면과 공공성 측면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도적인 사람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찰하며 개척하는 사람이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가는 사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함께 제시된 7개의 항목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주안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상위 3개 항목에서는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과 소양으로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 인격적 성장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소양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

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첫 번째 역량이다. 미래 대응 능력은 창의성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적합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도성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가 지속적인 평생 학습을 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서 강조하였다.

### ●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나.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체 의식은 포용성의 가치를 반영하며 존중, 배려, 협력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공동체 의식은 UNESCO 등이 인류공동체의 과제로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다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가 자칫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 ●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 기초소양은 교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는 소양이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 학습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을 기초소양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소양의 함양은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적

인 과제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언어 소양은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과 말을 통해 정보를 이해·해석하고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초적인 문해력과, 영상, 사진, 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 형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 문해력을 포함한다.

수리 소양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초적인 수리 연산 능력은 물론 복잡한 문제를 수리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하며 수리적 추론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며 규칙성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소양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및 기술의 활용 능력과 함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전자 정보 관리와 분석 능력, 디지털 윤리 의식, 디지털 안전 및 보안 의식 등을 포함한다.

### ●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익혀야 하는 학습 경험의 바탕 위에서 적성과 진로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더욱 적합한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 온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부터 이수 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과정의 다양화와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의 강화를 강조하며 선택 교과목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학생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와 이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제를 중시하고 있다.

## ● 깊이 있는 학습

마.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올바른 학습의 상태를 ‘깊이 있는 학습’으로 요약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 교과의 고유한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 및 탐구 방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은 교과 지식을 더 많이 학습해야 한다거나 더 어려운 수준까지 학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과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생각이나 경험과 연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지식은 무기력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이 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 능동적 참여와 학습의 질 개선

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수업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는 단순한 수업 출석이나 활발한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 학생의 관심과 호기심에 기반한 ‘생각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학생이 몰입의 경험과 학습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또는 학생의 일상 세계와 연결된 적절한 탐구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의 호기심을 유발해 내는 것이 수업 설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평가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의 주된 목적이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수업 등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는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과정, 사고의 과정,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 ● 자율화·분권화에 기초한 협력체제 구축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 및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경쟁이 아닌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 가.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이 갇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를 구체화해 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담겨야 할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한 주요 키워드로는 주체성, 책임 의식, 진로 설계 등 자기주도성 관련 키워드, 도전, 진취성 등 창의·융합·혁신 관련 키워드, 포용, 협력, 공감 등 존중과 관련되는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들 키워드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인간상으로 꾸준히 제시되었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인간상이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갖는 가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간의 인간상을 유지하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즉,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교육과정의 비전에 따라, ‘주도성’의 개념과 가치를 포함하여 자주적인 사람의 특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 ● 자기주도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때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창의적인 사람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새로운 통찰력,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폭넓은 기초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생이 확산적 사고 능력,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능력 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알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생이 융통성 있게 발상을 전환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 ● 교양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 ● 더불어 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존중과 배려,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 나. 핵심역량 교육의 의미와 방향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다만,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은 나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과 배려와 협력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 ● 자기관리 역량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관리, 기초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진로 설계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택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 지식정보처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 ● 창의적 사고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융합적 사고도 창의적 사고 역량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 ● 심미적 감성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공감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 협력적 소통 역량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여러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 공동체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민 의식, 준법정신, 질서 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관계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및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기대하는 교육의 성과를 나타낸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주로 교육받은 사람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특성을 요약하며, 핵심역량은 교육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틀을 기반으로 삼아 학교급별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교육 목표라는 공식적인 형식에 맞추어 제시해 준다. 즉,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학교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기 관리 역량 ·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협력적 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친취적 발달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양 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4)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II

##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1. 설계의 원칙

‘설계의 원칙’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반영해야 할 주요 원칙들과 유의 사항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되,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 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 설계·운영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민주적인 절차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 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방향과 기본 원칙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1)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2)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 시설·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 6)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7)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방향

- 1)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운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학교 교육의 방향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폭넓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은 특정 교과 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폭 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고려 사항

- 2) 학생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 시설·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운영은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교의 교육 여건 및 환경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가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 다양한 교육 활동의 설계·운영

- 3)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설계·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

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 지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근거가 된다.

### ● 기초소양 함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양 지원

- 4)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은 모든 학습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평생 학습을 위해 모든 학생이 기초소양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역시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충실하게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방과 후 활동 및 방학 중 활동의 설계와 운영

-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과 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외부의 지원 방안이나 지도 교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활동

- 6)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을 지도하거나 멘토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가정 및 지역과의 연계

- 7)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가정·지역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보호자) 간 신뢰 형성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교육 방침을 설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가정은 학교로 학생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및 협력적 노력을 제공하고, 학교는 가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 정보, 양질의 학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소속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학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가정·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속적·지속적인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과정

나.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 전 교직원의 전문성과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설계·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국가 교육과정의 정착과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체계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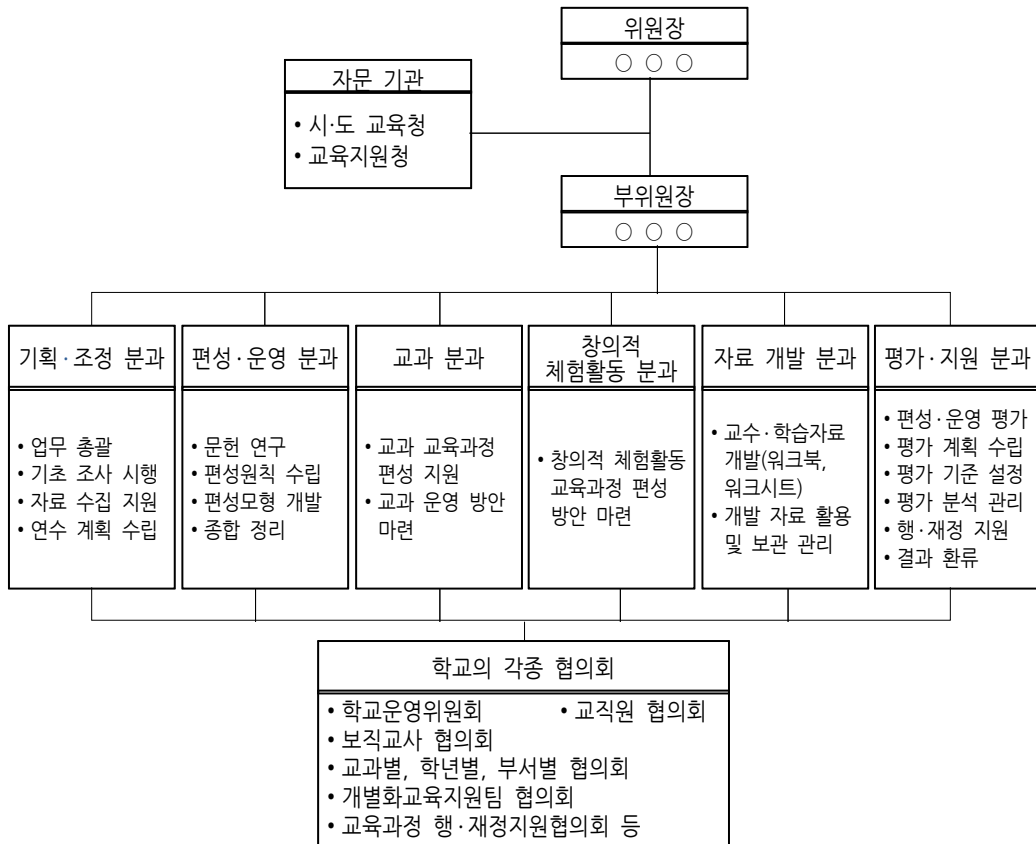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외에도 교직원 회의, 동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능동적·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교육 수요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 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방향과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계획의 수립,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 활동,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점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와 연수 지원,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개선 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2]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예시)



### ●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 모임 및 연수, 연구 활동

-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공유,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수·학습자료의 공동 제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 활동과 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물적·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

-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설계·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였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평가 참여자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회 관계자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자체 평가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4〉 학교 교육과정 자체 평가 기준(예시)<sup>6)</sup>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자체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계획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자체 평가 지표
학교 교육 과정 운영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교과 교육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의 교수·학습 및 평가는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별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는가?
		• 교과별 역량, 목표, 내용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창의적 체험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지원 체제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연수 및 장학을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 과정 성과	교육 성과	• 학생은 교과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계획별 교육 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원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와 각 교육계획에 따른 학교 변화에 만족하는가?
	교육 성과 활용	• 학교·교원·학생은 교육과정 목표 달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
		• 학교·교원은 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교육과정 성과 등을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

6)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하였음

## 2. 교수 · 학습

### 가. 깊이 있는 학습

가.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 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1)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 이해, 과정 · 기능, 가치 ·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 2)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 4)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 · 수리 · 디지털 기초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익히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내면화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과 지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사고 및 탐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교과 고유의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개념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구조화하며 의미를 생성해가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은 분절적인 기술이나 활동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고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적용, 확장,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수업 설계

- 1)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고 각 차원의 내용 요소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기저의 근본(fundamental, core, big)이며, 학습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의미한다. 이는 영역별로 학습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며, 영역을 구성하는 학습 내용의 세 차원(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기준이 된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면화, 자기맥락화해야 할 아이디어로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그 의미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는 학교급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동일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 수준이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은 교과 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고려

- 2)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 내 영역 간, 또는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업은 학생의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교사는 교과 간 내용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가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교과 지식을 학습할 때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왜 그러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학습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는 중요한 개념 및 핵심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공통성 혹은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을 연결하며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의미 있게 파악하게 되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 삶과 연계한 의미 있는 학습

- 3)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강조된 사항의 하나는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과 학습 내용이 학생에게 친숙한 일상생활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이 이해할 때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삶과 연계된 학습은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맥락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교과 학습 내용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해 보는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교과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세계의 다양한 맥락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탐구 방법의 학습 및 학습에 대한 성찰

- 4)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학생 스스로 교과 지식을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에게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습 전반에 걸쳐 자신의 학습 과정과 사고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인지 혹은 성찰은 학습자의 역량 계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메타인지는 학습에서 교과와 관련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용되는 사고 과정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 혹은 ‘학습에 대한 학습’으로 표현된다. 즉, 학생이 학습 과정을 점검 및 개선하는 경험은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 기초소양 학습

- 5)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은 교과 학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기초소양은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가 되며,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반드시 길러주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기초소양은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되며 또한 각각의 기초소양은 모든 교과 학습을 통해 함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 학습에서 지문으로 제시된 문항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양이 필요하며, 사회나 과학과 학습에서 그래프 등에 제시된 수치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리 소양이 요구된다. 또한,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다양한 개념과 용어를 학습하는 것은 곧 언어 소양을 길러주는 학습경험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교과 교육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분석의 학습경험은 수리 소양을 함양하는 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

## 나.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

나.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1)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2)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 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협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깊이 있는 학습과 함께 강조한 것은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이다. 학습은 학생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학생은 그 의미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습 주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의 즐거움’은 단순한 흥미나 동기 부여가 아니라 탐구 질문을 통해서 학습 내용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학습에의 능동적 참여에서 강조되는 것은 탐구와 문제 해결이다.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는 높은 수준의 사고와 탐구를 통해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하는 법을 익히도록 지도하며, 교사와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 ● 탐구 질문을 활용한 능동적 참여 유도 및 토의·토론 학습 활성화

- 1)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탐구 질문은 ‘정답 찾기’가 아닌 여러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으로서,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미 있는 탐구와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탐구 질문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 비판적 사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탐구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주장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토론 학습, 여러 사람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결론을 내는 토의 학습은 학생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생은 토의·토론 학습 활동을 통해 교사뿐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 활발한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기도 하며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거나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서의 수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의·토론 학습을 강화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 체험 및 탐구 활동 경험 제공

- 2)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 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자신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강의식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 학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 협동 학습 경험 제공

- 3)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협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협동 학습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학생 주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능력과 수준 및 특성을 갖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가는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소집단 구성원 간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인지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학생은 공동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보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공동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인지적 영역의 발달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책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 다.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

다. 교과와 학생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 1) 학생의 선행 경험, 선행 지식, 오개념 등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소재, 자료, 활동을 다양화한다.
- 2)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3)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 학습자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마다 선행 학습의 정도나 현재의 지식수준, 학습 능력, 학습 선호도, 학습에 대한 동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춤형 수업은 학생이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에 도달하는 속도나 방식이 다르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교사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유형의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 학생의 특성 고려

- 1) 학생의 선행 경험, 선행 지식, 오개념 등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소재, 자료, 활동을 다양화한다.

교사는 학생의 준비 정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속도, 선호하는 학습 방법,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습 방법과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개별 학습 활동은 단순히 학생이 혼자서 하는 학습의 형태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활동 방식으로는 학생 개인 활동 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다. 교사는 학습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소재, 자료, 활동, 결과 표현 방법, 환경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활성화

- 2)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달은 맞춤형 학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개개인의 학습 경험과 관련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학습 수준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맞춤 학습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맞춤교육 지원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 선지식과 오개념의 특징, 학습 방법, 관심사 등에 대한 학습자 특성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 분석 기술의 적용과 각 특성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 과정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의 문제, 편향성과 공정성의 과제, 접근성의 격차 발생의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들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 개인적·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수업

- 3)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 학습자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생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경험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수업은 해당 학습자가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그릇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 학습 결손 예방과 보충 학습 기회 제공

- 4)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결손이나 학습 격차의 심화 문제는 책임 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일차적으로는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초소양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 수업을 통해 일정한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과 특성 고려하여 운영 시기와 방법, 대상 학생을 적절히 조정한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효율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 1)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연한 학습공간을 활용한다.
- 2)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3)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 4) 학교는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구, 기계, 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유의한다.
-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습하기에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함께 학습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습자가 서로 존중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교실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실험, 실습 및 기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AI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 교과 교실제 운영

- 1)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연한 학습공간을 활용한다.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를 활성화한다. 지식 암기가 아닌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

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한 교과 교실이 필요하다. 탐구가 가능한 수학실, 실험 중심의 과학실, 악기가 갖춰진 음악실 등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 2)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지원하고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자료, 학습 속도가 다른 학생들을 배려한 학습자료,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등의 공동 개발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사례 또는 각종 교육 자료전이나 경진대회에 출품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 ●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 3)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학습자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디지털 학습 환경의 구축은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과 속도에 맞게 학습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의 기반이 된다. 아울러 다양한 학습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시각화, 게임 기반 학습 등을 통해 더 흥미롭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습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 ●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 4) 학교는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구, 기계,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유의한다.

실험 실습이나 실기 지도 시 시설·기구, 기계,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과학 실험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교과, 체육 및 예술 교과의 실기 지도에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위기관리 차원에서 실습 시설·기구 및 기계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실습 시설·기구 및 기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이 실습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안전 용구를 구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용 방법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춤형 교육과 모드를 위한 포용 교육의 맥락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이 교수·학습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 지원이란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행동 지원이란 정서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으로 교육활동 중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해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도와 형태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공학 지원이란 주로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 정보 습득,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 신체 특정 부위 작동, 이동, 기타 다양한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때 이를 지원하는 공학적이며 도구적인 지원을

말한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은 시·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평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맥락에서 평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에 관한 지침, 그리고 교과 특성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가. 학생 학습의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가.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즉,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교사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정확한 학습 상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하여,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지원한다.
- 2)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반영한다.
- 4)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방법, 평가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즉, 수업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결과가 학생에게 환류(feedback)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학생의 자기 평가와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학교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메타인지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 방법과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다. 수행평가의 내실화와 학생 맞춤형 평가 활성화

- 다. 학교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실습이 중시되는 평가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3)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 4)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5)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는 학생이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

용의 기억이나 재생을 넘어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과제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 맞춤형 평가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좀 더 정교하게 진단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처방하는 ‘맞춤형 진단평가 및 처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한 바를 평가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조정이란 평가문항의 제시 방식, 답안 작성 방식, 평가 환경, 평가 실시 시간 등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조정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별화 교육지원팀에 필요한 평가조정 방안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여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방향 등을 결정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등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학습 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다.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 ● 교육적 편견 극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등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인종, 민족, 태어난 곳, 언어 등이 다른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이나 직업, 장애, 종교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이 아닌 개방적 관점과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 ● 부당한 차별의 극복

나.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학습 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교육의 기회나 학습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교육의 평등을 구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포용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언어, 능력,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교우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다.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학교는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이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 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 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교과목의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귀

국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 주어 국내 학교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신장하고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 ● 특수학급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은 통합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해당 학년군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급에서의 교육과정 조정은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 내용의 난이도, 내용의 소재, 자료나 정보의 표현 방식 조정,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의 연계 등으로 가능하다. 내용 연계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성취기준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깊은 내용,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개발된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해 이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매 학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참고)

### ●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은 원칙적으로 일반 학급에 배치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학급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특별 학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소양을 갖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많은 교우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할 때는 일반 학생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종교 과목 개설 시 고려사항

바.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단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교 과목 개설과 관련한 학교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Ⅲ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로 재분류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아)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 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구조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제를 달리하였다.

〈표-5〉 개정 시기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li> <li>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li> <li>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li> <li>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li> </ul>

## ● 학년(군)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 편성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학년(군)과 교과(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학년(군)을 구분하여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3학년 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 학년군 설정

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학년군 체제를 설정하였다. 학년군 설정의 목적은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및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다.

〈표-6〉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 ●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로 재분류한다.

교과(군)의 설정으로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교과(군)을 통해 교과 간 내용 및 활동의 재구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및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학교는 교과(군) 내 혹은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교과목별 수업 시수나 학점을 조정하는 등 수업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과목은 학생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선택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 진로 선택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변경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은 과학, 체육, 예술 계열에 관한 과목이며, 보통 교과에 편제되었다.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등을 위한 과목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습 순서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에 배열된 순서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학교, 교사,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교과목 집중이수

사)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과목 집중이수는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의 여건, 학교급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는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 진로연계교육

아)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이 자기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은 진로 탐색이나 진로 설계에 국한하지 않고, 상급 학교나 학년 진학 전 학교생활 및 학습 준비, 교과 학습 연계, 진학 준비 등에 중점을 두어 진로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 ●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건강 교육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즉 안전·재난, 보건 및 성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 등을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등 생활 속의 윤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 교육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익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인권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 교육 및 국제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고 통일의 방법과 내용, 통일 이후의 사회와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

독도 교육은 학생들에게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금융 교육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정신, 복지와 세금·금융 생활·지적 재산권, 사회적 경제 등을 학습하여 합리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 등을 통해 더 나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안전교육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기본 사항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안전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을 통합교과로 재구조화하였다. 전 학교급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 계기 교육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계기 교육은 시기별,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계기 교육은 교과 협의회나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계기 교육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 원격수업 운영

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4조(수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등의 교육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원격수업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육상 필요한 원격수업과 비상시 원격수업 전환 대비를 위해 원격수업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 새로운 과목 개설**

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목 신설의 주체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변화 지원

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 교육과정의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른다.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 연계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성취기준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깊은 내용,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때에는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도 수행이 어렵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성화된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내용,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영역과 내용은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며, 대체할 경우 교수·학습과 평가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1) 편제

-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을 재구조화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포함되었던 ‘안전한 생활’은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통합되었다.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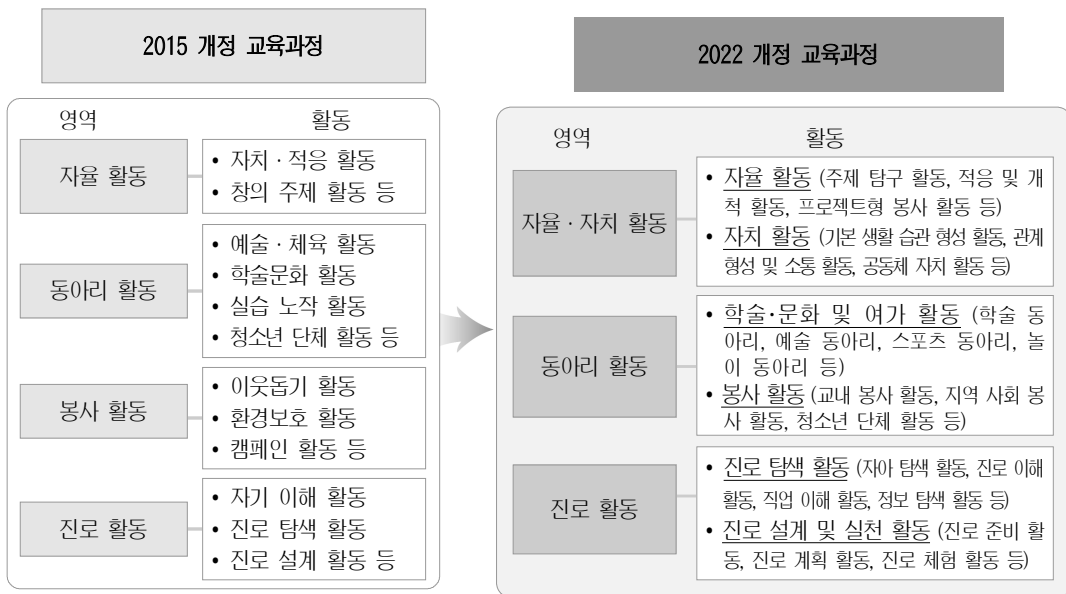
[그림-3]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1~2학년 국어 교과 시수의 확대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2015 개정 통합교과 내용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한글 해득 교육 강화를 위해 국어 교과에서 34시간을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한글 해득 교육과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고 교과 학습 도입 초기부터 학습 격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학급 공동체 중심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개설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네 개의 영역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 개의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기존 자율 활동을 자율·자치 활동으로 변경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 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자치 활동을 강조하였다. 봉사 활동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동아리 활동의 하위 활동으로 편성되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4]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의 재구조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신설되었던 ‘안전한 생활’ 64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로 분산되었다. 내용 관련성이 높은 슬기로운 생활에 32시간, 바른 생활과 즐거운 생활에 각각 16시간을 늘려 통합하였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새롭게 체계화하여 체험·생활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408	408
	사회/도덕	국어 482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44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224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400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506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238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의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다.
- ⑤ 정보교육은 실과의 정보영역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①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시수제’로 운영되며,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을 재구성하거나 블록 타임으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이때 1시간 수업을 40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 감축된 시간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수업 시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준 수업 시수’와 ‘최소 수업 시수’를 이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군)별, 교과(군)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20% 범위 내 증감이 가능한 ‘기준 수업 시수’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기준 수업 시수’가 되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③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 소계와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가 ‘최소 수업 시수’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 기준 시수가 됨으로써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만 ‘최소 수업 시수’가 되었다.

〈표-7〉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수업 시수 증감 지침에 따른 수업 시수 의미

개정 시기	교육과정 지침	국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의 수업 시수 의미 변화			
		교과(군)별 시수	교과(군)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군) 내에서 수업 시수 20% 시수 조정 가능	기준 시수	최소 시수	최소 시수	최소 시수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군)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수의 20% 시수 조정 가능	기준 시수	기준 시수	기준 시수	최소 시수

④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된 교과(군)를 설정하여 과학/실과 교과군이 제시됨에 따라 3~4학년군에서는 과학을, 5~6학년군에서는 과학/실과 교과군을 지도하게 된다. 즉, 5~6학년군의 340시간에는 실과의 수업 시수가 포함된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군 운영 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수를 고려하여 교과별 시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AI 기초소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의 시수를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실과 교과의 정보영역 17시간을 포함하여, 정보교육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보교육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으로 편성·운영할 수도 있고,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20% 증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교육은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생의 실생활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가.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학년(군)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 가)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나)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이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다)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라)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마)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학교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년별 혹은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준 수업 시수 범위 안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고, 교과 집중 이수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적인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단,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모든 교육 활동에서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 학년(군)별 이수 교과목 안내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문서, 학교 누리집,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가정에서의 학습 계획을 돕고, 전·입학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주별 또는 월별로 학년(급)의 세부적인 교수·학습 활동 계획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다.

## ● 편성·운영의 주안점

초등학교 교육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기르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예절 형성을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활동을 구성해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 및 사회와 연계되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 시수 증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수를 20% 범위에서 증감하도록 허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에서만 시수 증감이 가능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시수 증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과(군)에서 20% 시수 범위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는 경우,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해서 그 범위를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시수 범위 내에 한하도록 한다. 이 경우, 1~2학년에서는 최대 47시간, 3~6학년에서는 각 학년군별 최대 40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교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때 특정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20% 내로 증감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은 최소 필수 기준이므로 수업 시수를 감축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제시된 기준 수업 시수보다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 ● 교과 집중이수

교과 집중이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수 교과 수의 감축을 통한 학습 부담 경감과 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집중 이수를 학기당 이수 교과 수의 감축보다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미로 재 규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정 교과 내용이나 활동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습 내용 이해나 실기 능력 향상 등 교육 효과성을 높이려 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집중이수는 학년별, 학기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학교행사와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의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다. 교과 집중 이수 여부를 결정할 때 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년별 혹은 학기별 집중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 ●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바뀌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의 여건 등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1개 이상의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가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자율·자치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거나, 자율·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 또는 자율·자치 활동과 진로활동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개 영역 모두 편성할 수도 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내용 등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6개 학년 동안 의미 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학교는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는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나)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모든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습 속도의 차이, 지역의 차이, 전입 등으로 인해 학습 기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 ●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은 학습의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이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 개인별 학습 출발점을 파악하여 학습 결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기초 학습 능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면 학습 결손 누적이 심화되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별도의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의 기초·기본 학습 능력 제고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에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기초·기본 학습 능력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모든 학생이 한글을 해득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입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년군, 교과군 및 교과 집중이수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교과목의 이수 시기, 학년이나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의 분량이나 내용 등이 학교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전입 학생들의 교과 미이수나 중복 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여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료(교육 방송, 시·도 교육청 제공 자료, 학교 제공 자료 등)를 활용하여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취수준 등을 확인하여 미이수한 특정 교과의 내용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복식 학급의 편성·운영

소규모 학교에서 2~3개 학년을 묶어 복식 학급을 운영할 경우, 학년 간 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동일 학년군(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복식 학급으로 묶인 학년 간에는 교육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통 주제, 개념 등에 기초하여 학습자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교재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학교의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과정 컨설팅단, 교과 연구회 등을 활용하여 복식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교재 재구성, 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 3) 학교는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나)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 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단위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서 교과(군)별 20% 증감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왔지만 그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여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 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은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단순 실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학습자의 주도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을 반드시 편성·운영해야 하며, 운영 학년·학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한다.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은 관련 교과(군)에 편성하며, 이때 해당 교과(군)는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때

세부 절차와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평가는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 ● 학교자율시간의 활동 및 과목 개설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이나 활동의 내용은 학생의 필요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며, 학교는 여러 활동이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은 교과 통합형,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형, 지역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설문, 학년(교과)군 협의회 등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쳐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운영

학교자율시간은 원칙적으로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 수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학교자율시간은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각 학년에서 편성한 ‘총 수업 시간 수’에 따라 편성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4학년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수는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다.

〈표-8〉 초등학교 3~4학년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수(순증 예시)

학년(군)	3학년	4학년
3~4학년군 총 수업 시간 수	2,038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999	1,039
학교자율시간운영 시수(학기별)	29.38(999÷34)	30.56(1,039÷34)
실제 운영 시수(학기별)	29시간 또는 30시간	30시간 또는 31시간

학교자율시간 확보를 위하여 운영 시수의 순증도 가능하며, 시수 확보 과정에서 특정 과목이나 영역의 시수가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유의하여 균형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확보된 학교자율시간은 특정 월이나 주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거나, 학기 내에 분산 운영할 수 있다.

## 라. 진로연계교육의 도입

- 4) 학교는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는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한글 해득 교육 등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으로 운영한다.
- 나) 학교는 중학교의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다) 학교는 진로연계교육의 중점을 학생의 역량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두고 교과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의 학교급 간 연계,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한다.

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진로 교육은 학생이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 탐색·설계·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연계교육은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진로 탐색에 국한하지 않고, 입학 초기 혹은 상급 학교나 학년 진학·진급 전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 연계, 진로 탐색 등에 중점을 두어 진로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학교와 교사는 내실 있는 진로연계교육을 위해 관련 교과(군) 성취기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영역, 범교과 학습 주제인 진로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심리 및 정서나 또래 관계와 관련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진로연계교육으로 운영한다. 입학 초기라는 특수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한글 해득, 기초 학습 습관, 또래 관계 등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 ● 진로연계교육의 자율적 운영

학교는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진급하기 전에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중학교의 생활 및 학습 준비, 자유학기 이해, 진로 탐색 등의 진로연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급 전환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변화되는 학교생활과 학습을 이해하여 중학교의 안정적인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진로연계교육의 중점

진로연계교육은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와 학년에서의 생활 적응과 학습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학생의 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급 또는 학년 간 전환 시기에 교과별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한 학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교과 학습이 순조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의 학교급 간 연계와 더불어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마.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5) 학교는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는 1~2학년 학생에게 실내·외 놀이 및 신체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나) 1~2학년의 안전교육은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워 생활 교과의 64시간을 포함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한다.
  - 다)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1~2학년 학생에게 놀이와 신체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1~2학년의 놀이 및 신체 활동 강화

초등학교 1~2학년의 실내·외 놀이 활동과 대근육을 활용한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를 놀이 경험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즐거운 생활의 시간을 활용하여 움직임과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 ● 1~2학년의 안전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기존 안전한 생활의 성취기준, 내용 요소를 통합교과로 재구조화하여 64시간을 운영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생활·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3학년부터는 과학, 실과, 체육 등 관련 교과(목) 학습을 통해 전 학년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의 체계적 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을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정보통신 활용 교육을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보건 교육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4. 특수한 학교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자율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아)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국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지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 ●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 다)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부터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편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중학교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 및 교육방식, 학교 출석 수업 일수 등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①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방송통신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 수업 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어야 하지만,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 자율학교, 특성화 중학교 등의 교육과정

바) 자율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되, 별도의 관련 지침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록

###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 위치나 여건에 따라 초·중, 중·고, 초·중·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하였으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 ●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아)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 등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IV

## 학교 교육과정 지원

## 1. 교육과정 질 관리

##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가)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학습 지원, 학력의 질 관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 등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 2)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2)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가)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나)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3)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나)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가)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학습 지원, 학력의 질 관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 등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 2)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 교육과정의 질 관리

국가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지원, 학력의 질 관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 등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국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2)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가)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나)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시·도 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필요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초 조사·연구 활동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교원 양성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 구성, 임기, 방법 등 위원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과별·학교급별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및 지침 작성 교육 중점 사항 설정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은 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급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학교급별로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나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나)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지원

시·도 교육청은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질 관리 연구팀이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실정, 학생 실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위 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내용·방법과 평가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의 결과를 수업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평가를 수립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원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가)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 나) 교과목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의 특성 및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4)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교육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지역 및 학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 나) 통합운영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학교 밖 교육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질 관리에 힘쓴다.
  - 라)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학생의 진로 및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가)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진로 활동 및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  
록

- 나)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각 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증진 및 학교급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다)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마)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3)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 소외 및 교육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학교,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 나)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라)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하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에 의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마)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바)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교사 간 협력 지원,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가)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 나) 교과목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의 특성 및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4)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교육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국가는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온라인 평가, 인공지능 기반 평가 등 평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 개인 맞춤형 피드백 강화 방안 등을 제공한다.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또는 직무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신산업 및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현장 실무 교육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가 인증·고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 디지털 역량 기술 등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현장 실무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산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지원한다.

## ●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 지원

국가는 모든 학생이 잠재적인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교원 배치, 학습 환경 마련, 학생별 상황 및 환경 여건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한다

##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학교 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수단 등의 설치 및 개조, 필요한 훈련이나 연습 제공,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설계와 개발 및 보급,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의 조정, 정보나 교수·학습 활동에의 접근 수단 다양화, 학생들이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의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 공학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는 학교나 사·도 교육청이 이러한 시설이나 도구, 자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 학생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법의 의도와 취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참고)

###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1) 지역 및 학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나) 통합운영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에 맞는 교육과

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학교 밖 교육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질 관리에 힘쓴다.
- 라)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 단위 학교 교과목 개설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 승인 신청 절차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과목 신설을 위한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신설 과목에 대비한 담당 교사 확보 및 교재 개발 계획,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한다.

### ●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급이 다른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과정, 교직원, 행정 활동 및 예산, 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통합운영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그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의 개설·운영에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보유

한 지역사회 기관을 발굴하여 학교 밖 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하고, 학교로 안내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기관을 관리(평가)·재심의 하는 등 학교 밖 자원을 운영·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2) 학생의 진로 및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가)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진로 활동 및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나)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각 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증진 및 학교급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다)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마)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성장의 연속선 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위한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로 진학하기 전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제작·보급, 교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상급 학교 및 사회생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진로연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 시·도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 단위 학교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원,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조성·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 소외 및 교육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학교,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 나)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라)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하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에 의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마)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바)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교사 간 협력 지원,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 ● 교육 격차 완화 및 맞춤형 지원 체제 마련

농산어촌학교, 소규모 학교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 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가 맞춤형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안내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홍보 및 연수 활동 등을 병행해야 한다.

### ● 과목 이수 기회 제공 및 귀국자·다문화 가정 학생 배려

시·도 교육청은 전·입학, 편입학, 복학, 귀국 학생 등에게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 또는 고등학교 공통 과목의 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별도의 이수 시기를 정하여 이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거나,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의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 학교에 특별 학급을 지정·설치하는 등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는 학생들의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 교재를 개발·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 ●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초 실태 조사를 통해 문학, 외국어, 과학, 체육, 예능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한다.

### ●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공유된 책무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협력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통합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특수교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학교 교육과정 수립 단계부터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업방법과 평가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및 연수의 내용에는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 인식 및 이해 교육 외에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사용 등 교수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통합교육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3.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 2)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3)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다)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마)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시설 확보, 유연한 학습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과 전문교과 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3)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 인정,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4) 학교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안내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시·도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6)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가)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7)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수업 설계·운영과 평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와 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

#### 가. 국가 수준의 지원

- 1)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 2)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3)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유기적 협력 지원

국가 차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 교과 연구회 활동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교과 교육과정 이해 및 교수·학습과 평가 운영 역량을 제고하는 현장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인력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 연구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해 연구하는 총론 차원의 연구회,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회 그리고 각 교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포함된다.

### ● 미래형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지원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와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자기주도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실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디지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대하는 교실 수업의 장면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정보를 분석하고,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지원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 시설과 중장기 교원 수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 1)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다)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마)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시설 확보, 유연한 학습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과 전문 교과 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기준과 지침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시설 및 설비가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사용되는지, 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지원함에 충분한지 등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하여 노후화된 시설은 정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또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보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먼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당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적극 안내한다. 또한 성취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위 학교에서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수업 모형과 예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해당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안전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안전교육 종합계획을 안내하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실습·체험 중심 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나아가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행정기관 및 단위 학교와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재난 대비 단계와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안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로·학업 설계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교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교육청 수준의 온라인학교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소인수 과목 운영, 동아리 활동 운영, 정규시간 중 발생하는 공강 시간의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 특성화된 교육과정에서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 실습과 전문 교과 실습 운영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연계·협력하여 특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현장 실습과 전문 교과 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현장 실습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산업체 등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3)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 인정,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4) 학교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안내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시·도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더불어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예시 자료(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와 교수·학습 자료 등을 조기에 개발·보급하고,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 교원의 전보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교과용 도서 개발·인정·보급

시·도 교육청은 국·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서나 지도서 외에도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 매체 활용을 포함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제작 연수, 우수 사례 보급, 디지털교과서 교사지원단을 활용한 학교 컨설팅 등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 발굴·안내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기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발굴·안내해야 한다. 또한 발굴된 교육 자원에 대한 승인과 관리 및 재평가 등과 같은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통해 교육 자원 관리를 내실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 구축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점제 기반 선택 과목 운영, 진로 선택 과목 및 융합 선택 과목 등과 같은 체제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학생 배정, 교원 수급 및 순회교사 운영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배정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개별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관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가)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및 교수·학습, 평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의 설계·실행·공유를 통해 실천 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원 및 일반 행정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및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단위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은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연수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연구,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보급 등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한다.



## ● 연구학교, 연구 교사,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개선 등을 위하여 단위 학교의 상황과 교육청의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 및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지도 능력과 연구 수행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연구 교사로 지정하여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과별·주제별·학년별·학교별 교원들의 자발적인 교원 연구 모임을 발굴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맞춤형 수업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7)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수업 설계·운영과 평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및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와 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

## ● 원격수업의 효과적 지원에 관한 규정

「원격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2022년 1월)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의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및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운영에 대한 지원

시·도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무선망 고도화, 정보화 기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디지털 기반 플랫폼(공공 및 민간 플랫폼)과 다양한 화상수업 도구 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와 기자재를 확충한다. 나아가 교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운영, 디지털교과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사례 개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6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교육부.
- 교육부(2016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 교육부(2016c).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 교육부(2021).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 교육부(2022a). 보도자료: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 교육부(2022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김경자·곽상훈·백남진·송호현·온정덕·이승미·한혜정·허병훈·홍은숙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개발 연구. 교육부·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박남국·김대현(2019). 초등학교 학교수준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한 연구-지침과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1(2), 87-117.
- 온정덕·김경자·박희경·홍은숙·황규호(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 이병호(2009).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방안. 교육과정연구, 27(4), 21-45.
- 이승미(2019).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9(3), 77-97.
- 정영근·서근원·주철안·황성원·조재식·남궁상운(2009). 국가 교육과정 관련 문서 체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 RRI 2009-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혜정·김영은·이주연·곽상훈·김광하·김기탁·김용진·박지만·진동섭·최동선·한충희·황유진(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중·고등학교)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규호·소경희·백남진·유영식·손미현·장은경·홍원표·이승미·김종훈·손민호·온정덕·정혜승·맹은경·김선화·차조일·신영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 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 황규호·소경희·강현석·온정덕·백남진·최종선·이승은·박영출·손미현·김진원(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 황규호·온정덕·박일수·백남진·이주연·김성미·안나·김현우·손미현·방길환(2023).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 ACARA (2013). General capabilities in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F10>
- ACARA (2022). Version 9.0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
- ACARA (June, 2020).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5.0

- Australian Education Ministers (2019). Alice Springs(Mparntwe) Education Declaration. Eudcation Council.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2016). Curriculum Overview. Retrieved from <https://www.curriculum.gov.bc.ca/curriculum/overview>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2021). Vision for Student Success. Retrieved from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 n/program-management/vision-for-student-success>
-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December 2014.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ational-curriculum>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 Jakson, P. W.(1992). Conceptions of curriculum and curriculum specialists. in Jackson, P. W. (Ed.) (1992).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A project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Jerald, C. D. (2009). Defining a 21st Century Education. Center for Public Education.
-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2018). How the key competencies evolved over time: Insights from the research.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New Zealand Curriculum.
- OECD (2020). *Curriculum overload: A way forward*. Paris: OECD Publishing.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http://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OECD learning compass 2030.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Technical

Report: curriculum analysis of the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2).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a). Our Mission and Vision. Retrieved from <https://www.moe.gov.sg/about-us/our-mission-and-vision>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b). Desired Outcomes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desired-outcomes>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c). 21st Century Competencies. Retrieved from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21st-century-competencies>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2023). Pathways and Possibilities: Singapore's Education Journey.

World Economic Forum (2016). *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2020a).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 (2020b). *Schools of the Future: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文部科学省(2017). [総則編] 小学校学習指導要領 (平成29年告示) 解説.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content/20230308-mxt\\_kyoiku02-100002607\\_001.pdf](https://www.mext.go.jp/content/20230308-mxt_kyoiku02-100002607_001.pdf)



## 부록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이때의 임시 교과목 및 교과 시수표는 일제 강점기 말기의 심상소학교의 교과목 및 수업 시수표를 근간으로 개정된 임시방편의 것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수신과를 폐지하고 공민과를 등장시킨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가 우리 국사로 대체된 점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고 신생 국가로서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광복 직후 초등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긴급히 결정된 것이어서 이후 수정하여 운영되었다. 이전에 비해 교과 편제에는 습자·요리·재봉, 도화·공작 및 실과가 추가되어 시간 배당이 늘었고, 4학년 이상은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남녀별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

〈표 1-2〉 초등학교 과목 및 교수 시수표(1945. 10.)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공민	2	2	2	2	2	2
국어	8	8	8	7	6	6
역사	-	-	-	-	2	2
지리	-	-	-	1	2	2
산수	6	6	7	5	5	5
이과	-	-	-	3	3	3
체조	4	4	5	3	3	3
음악	-	-	-	2	2	2
습자	-	-	1	1	1	1
요리·재봉	-	-	-	여 3	여 3	여 3
도화·공작	2	2	2	남 3 여 2	남 4 여 3	남 4 여 3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실과	-	-	-	남 3 여 1	남 3 여 1	남 3 여 1
계	22	22	25	30	33	33

출처: 문교부, 편수 자료 1-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0), p.3.

## 2. 교수요목의 시기(1946년)

이 시기는 교육과정의 개념상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교수요목은 교과별로 가르칠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문헌에 나타난 교수요목의 특징은 먼저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고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교과별 교수요목의 특징은 첫째, 교육과정의 진술 체제가 교과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교과가 단원 또는 제재명과 내용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각 교과마다 단원 또는 제재별로 이수할 시간 수를 밝히고 있다. 셋째, 내용 요소의 진술 형식이 설문 형식, 단순한 내용 요목 형식 등 교과에 따라 달랐다. 넷째, 교과의 편제는 실과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금과 비슷한 편제를 갖추었다. 다섯째,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사회생활과’의 탄생으로, 사회생활과는 공민, 역사, 지리, 직업, 자연 관찰(1~3학년)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제되었다. 1, 2, 3학년에 이과 시간을 배당하지 않은 대신, 그 내용을 사회생활과에서 ‘자연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별로 연간 38 시간씩 이수하도록 하였고, 실과의 내용은 남자의 경우 5, 6학년 사회과와 미술과에서, 여자는 가사과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표 1-3〉 교수요목 시기의 초등학교 교과목 및 연간 수업 시간표(1946. 9.)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	360	360	360	360	320	320
사회생활	160	160	200	200	남 240 여 200	남 240 여 200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과	-	-	-	160	160	160
산수	160	160	200	200	200	200
보건	200	200	200	200	200	200
음악	80	80	80	80	80	80
미술	160	160	160	160	남 160 여 120	남 160 여 120
가사	-	-	-	-	여 80	여 80
계	1,120(28)	1,120(28)	1,200(30)	1,360(34)	1,360(34)	1,360(34)

※ 시간은 1년을 40주로 하여 교과별 주간 이수 시간을 나타낸 것임.

출처: 함종규,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전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189.

### 3.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년)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제1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이었으나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교과서는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제에서 최초로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남에 따라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강조하였다.

〈표 1-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1954. 4. 20.)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	25~30% (240~290분)	25~30% (250~300분)	27~20% (290~220분)	20~23% (220~260분)	20~18% (240~220분)	20~18% (250~220분)
산수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0 (180~120)	15~10 (190~120)
사회생활	10~15 (100~140)	10~15 (100~150)	15~12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자연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건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음악	12~10 (120~100)	15~10 (150~100)	8~10 (90~110)	8~5 (90~60)	8~5 (100~60)	8~5 (100~60)
미술	10~8 (100~80)	10~8 (100~80)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실과	-	-	-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특별활동	5~2 (50~20)	5~2 (50~20)	5~8 (50~80)	5~8 (60~100)	5~10 (60~120)	5~10 (60~120)
계	100% (960분)	100% (1,000분)	100% (1,080분)	100% (1,120분)	100% (1,200분)	100% (1,240분)
연간 총 수업시간 수	840시간 (24)	875시간 (25)	945시간 (27)	980시간 (28)	1,050시간 (30)	1,085시간 (31)

① 백분율은 각 교과 및 특별활동의 1년간 수업 시간에 대한 학년별 시간 배당을 표시함.

② (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을 표시함.

출처: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1.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 4.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공포했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통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자 ‘교과 과정’이라는 명칭 대신 ‘교육과정’이라 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조직 면에서는 합리성,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함으로써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과정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학교 급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1, 2학년에서 각 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통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이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1969년 부분 개정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을 강화하고 특별활동을 체계화하고 강조하였으며,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 실시를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 1-5〉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 부분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69. 9. 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6~5.5	6~7	6~5	5~6	6~5.5	5~6
	산수	4~3	3~4	3.5~4.5	4.5~4	4~5	5~4
	사회	2~2.5	3~2	3~4	4~3	3~4	4~3
	자연	2~2.5	2~2.5	3.5~3	3~3.5	4~3	4~3
	음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육	2.5~3	3~2.5	3~3.5	3.5~3	3~3.5	3~3.5
	미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과	-	-	-	2~1.5	2.5~3	2.5~3.5
반공·도덕		2	2	2	2	2	2
계		22	23	25	27	29	29
특별활동		1.5~	1.5~	2~	2~	2.5~	2.5~

출처: 문교부령 제251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9. 9. 4.

## 5.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년)

제3차 교육과정은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민교육 헌장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및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의 쇄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자아실현(개인)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 함양(사회)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 면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교과와 특별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교과는 총 9개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유지하되, 5, 6학년에서 국사 부분의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 면에서는 기존과 달리, 교과별·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단, 괄호 안에 주당 시간 표시)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특히 교육 내용에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을 탈피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 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별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아동회 활동, 학교 행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1-6〉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73. 2. 1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70(2)	70(2)	70(2)	70(2)	70(2)	70(2)
	국어	210(6)	210(6)	210(6)	210(6)	210(6)	210(6)
	사회	70(2)	70(2)	105(3)	105(3)	140(4)	140(4)
	산수	140(4)	140(4)	140(4)	140(4)	175(5)	175(5)
	자연	70(2)	70(2)	105(3)	140(4)	140(4)	140(4)
	체육	70(2)	105(3)	105(3)	105(3)	105(3)	105(3)
	음악	70(2)	70(2)	70(2)	70(2)	70(2)	70(2)
	미술	70(2)	70(2)	70(2)	70(2)	70(2)	70(2)
	실과	-	-	-	70(2)	70(2)	105(3)
	계	770(22)	805(23)	875(25)	980(28)	1,050(30)	1,085(31)
특별활동		35~ (1~)	35~ (1~)	52.5~ (1.5~)	52.5~ (1.5~)	52.5~ (1.5~)	52.5~ (1.5~)

※ 사회과 5, 6학년 시간 배당 140(4) 중, 70(2) 시간은 해당 학년의 국사 부문에 배당한다.

출처: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 2. 14.

## 6.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년)

제4차 교육과정은 1980년대 정치, 사회적 특수 상황과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개발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민주 사회, 고도 산업 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 사회, 통일 조국 건설에 필요한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데 목적

을 두었다.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으로 보았고, 한 사조나 이념을 고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기본 편제는 교과와 특별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특별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1~2학년에서 교과 간의 통합을 시도하여 바른 생활(도덕+국어+사회)과 즐거운 생활(체육+음악+미술), 슬기로운 생활(산수+자연)이라는 통합 교과서를 간행하였고, 이에 따른 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1, 2학년의 교과 활동 시간을 2~3 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이 큰 변화였다. 1, 2학년에서의 교과 간 통합시간 배당은 실제 운영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탄생시켜 제5차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설정의 길을 열었다. 또한 교과 활동 총 이수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1~3학년의 국어 시간을 1시간 늘리고, 특별활동 시간을 3학년부터 배당하였다.

〈표 1-7〉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81. 12. 31.)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374 (11)	374 (11)	68(2)	68(2)	68(2)	68(2)
	국어			238(7)	204(6)	204(6)	204(6)
	사회			102(3)	102(3)	136(4)	136(4)
	산수	204 (6)	136(4)	136(4)	136(4)	170(5)	170(5)
	자연		68(2)	102(3)	136(4)	136(4)	136(4)
	체육	204 (6)	238 (7)	102(3)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68(2)	68(2)
	미술			68(2)	68(2)	68(2)	68(2)
	실과				68(2)	68(2)	68(2)
	계	782(23)	816(24)	884(26)	952(28)	1,020(30)	1,020(30)
특별활동				34~(1~)	68~(2~)	68~(2~)	68~(2~)
총 계		782 (23)	816 (24)	918~ (27~)	1,020~ (30~)	1,088~ (32~)	1,088~ (32~)

출처: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p.94.

## 7.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년)

제5차 교육과정은 종전과 달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 접근 방식을 택하였다. 개정 방침을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에 두고,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과 운영 면에서의 개정의 중점을 기초 교육의 강화(1, 2학년 국어·산수와 독립), 통합 교육과정 구성, 정보화 사회 대응 교육 강화(컴퓨터 교육, 경제 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교육과정 해설서 발간) 등에 두었다.

1, 2학년은 통합 교과서를 발행했던 제4차와 달리 통합 교육과정 체제로 바뀌었고, 언어와 수리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시켰다. 또한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을 교과로 독립시켜 70시간을 배당하여 연간 수업 시간 수가 제4차 교육과정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1~6학년에 걸쳐 특별활동 시수를 다시 배정하였다.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1교과 다중 교과서를 채택해(국어: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산수: 산수, 산수 익힘책 등) 교과서의 종류와 책 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지역별(시·도 단위)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밖에 1, 2학년의 경우 학생의 활동 상황,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한 것과 심신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며,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이원적 구조로 제시하여, 1, 2학년의 교과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표 1-8〉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87. 6. 30.)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교과 활동	국어	우리들은 1학년 70	210(7)	238(7)
	산수		120(4)	136(4)
	바른 생활		120(4)	136(4)
	슬기로운 생활		60(2)	68(2)
	즐거운 생활		180(6)	238(7)
특별활동		30(1)		34(1)
계		790(24)		850(25)



구분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교과	도덕	68(2)	68(2)	68(2)	68(2)
	국어	238(7)	204(6)	204(6)	204(6)
	사회	102(3)	102(3)	136(4)	136(4)
	산수	136(4)	136(4)	170(5)	170(5)
	자연	102(3)	136(4)	136(4)	136(4)
	체육	102(3)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68(2)	68(2)
	미술	68(2)	68(2)	68(2)	68(2)
	실과	-	68(2)	68(2)	68(2)
특별활동		68(2)	68(2)	68(2)	68(2)
계		952(28)	1,020(30)	1,088(32)	1,088(32)

출처: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6. 30. p.4~5.

## 8.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개정에 있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교육 내용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해소, 자율 재량 확대),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다양한 이수 과정, 선택 확대, 시대적 요구 반영),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학습 부담 경감, 학습량·수준 조정, 이수 내용의 성차별 철폐),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학생의 적성·능력·진로 중시, 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 등 네 가지를 중점으로 삼았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편제는 교과, 특별활동, 학교 재량 시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한 것과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재 개발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 강화, 저학년 통합 교과의 합리적 조정, 고학년의 수업 시간 감축, 생활 기초 기능과 태도 교육 강화, 학교 재량 시

간의 신설,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 변경 등이 있다. 또한 1995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3~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의 수업 시간을 배당하여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표 1-9〉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92. 9. 30.)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어	210	238	204	204	204	204
	수학	120	136	136	136	170	170
	사회	슬기로운 생활 120 136		102	136	136	136
	자연			102	136	136	136
	체육	즐거운 생활 180 238		102	102	102	102
	음악			68	68	68	68
	미술			68	68	68	68
	실과	-	-	34	34	34	34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학교 재량 시간		-	-	34	34	34	34
연간 수업시간 수		790(70)	850	952	986	1,054	1,054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임(1학년은 30주로 함).

② 1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③ 1학년 연간 수업 시간 수 79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에 배당하여야 함.

출처: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 9. 30. p.2.

## 9.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기본 방향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으로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

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먼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구분을 없애고,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의 중복, 비약을 피하여 기본 교과 중심의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재량 활동을 신설·확대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기본 생활 습관 등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중심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학년제와 과목군 개념 도입에 따라 ‘자연’과 ‘영어’ 교과는 ‘과학’과 ‘외국어(영어)’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실습 중심의 실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과 시간은 5, 6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해 재량 활동을 확대하였고, 특별활동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1-10〉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97. 12. 30.)

학 교		초 등 학 교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국 어		238	204	204	204
	도덕	210	238	34	34	34	34
	사회	수 학		102	102	102	102
	수학	120	136	136	136	136	136
	과학	바른 생활		102	102	102	102
	실과	60	68	-	-	68	68
	체육	슬기로운 생활		102	102	102	102
	음악	90	102	68	68	68	68

학 교		초 등 학 교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미술	<div>즐거운 생활</div> <div>180                  204</div>		68	68	68	68
	외국어 (영어)			34	34	68	68
		<div>우리들은</div> <div>1학년</div> <div>80</div>					
	재량 활동	68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수업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997. 12. 30.

## 10.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년)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일시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시 개정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유급) 및 월반 등이 허용되지 않아 현실성이 미흡했으며, 학교별로 각 수준에 대한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요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의 중점으로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적극 반영, 수준별 교육과정을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교과별 교과내용 적정화 도모,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 시수 일부 조정을 포함하였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34주를 기준으로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 및 학년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총 수업 시수로 제시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를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 감축하였고, 학생의 직접적 체험 활동 강화를 위해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에서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른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 가능해졌고,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만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결정권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표 1-11〉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2007. 2. 28.)

학 교		초 등 학 교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국 어		238	204	204	204
		210	238				
	도덕			34	34	34	34
	사회	수 학		102	102	102	102
		120	136				
	수학			136	136	136	136
	과학	바른 생활		102	102	102	102
		60	68				
	실과	슬기로운 생활		-	-	68	68
		90	102				
교과	체육			102	102	102	102
	음악	즐거운 생활		68	68	68	68
		180	204				
	미술			68	68	68	68
	외국어 (영어)	우리들은 1학년		34	34	68	68
		80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총 수업시간 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학 교 구분	초 등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초등학교에서의 1시간 수업은 40분이며,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1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바탕으로 이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개정의 방향으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도입을 통한 교과 외 활동 강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수준별·영역별 재구조화, 과목(교과군)별 20% 자율 증감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명하면서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축소하여 의무교육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을 통해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량 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학습 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 초등학교 1~2학년 부진 학생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 기본 교육 강화,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저학년 돌봄 활동 지원 강화, 통합 교과인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반영하여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 특징이다.

〈표 1-12〉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2009. 12. 23.)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 (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 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 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 12. 23.

## 1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15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글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1, 2학년 수업 시수를 순증하여 안전한 생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2개 학년씩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를 배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별로 재분류되었다. 즉,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 총 8개의 교과(군)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교과별 수업 시수의 성격을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시수’로 전환하여 각 학교로 하여금 교과별 수업 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수의 증감 범위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증배만을 허용하고 있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년군, 교과군,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교과 집중이수<sup>7)</sup> 등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4개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및 입학 초기 적응활동,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강화 등의 사항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 나. 누리과정 연계 및 한글교육 강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지적되어온 사항이다(김진숙, 2006b; 박순경, 2013; 이미숙 외, 2014; 김경자 외, 2016). 특히, 김경자 외(2016)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과의 연계 방안으로 문서 체계의 연계, 각 교육과정에 연계 지침 제시, 학습 영역 간의 연계, 내용의 구조와 진술 방식의 연계, 초등 통합교과의 영역(대주제)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주제’ 간의 계열성 확보, 초등 1~2학년군 국어와 수학의 출발점과 누리과정의 도달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는 두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정하지 않고

7)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집중이수는 학년별, 학기별 집중이수보다는 특정 교과 내용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만 개정하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번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을 강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활 도구의 활용, 자연 탐구 활동 및 신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활동을 강화하여 할 줄 아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우리말과 글자에 대한 누리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 1~2학년에서는 한글을 완전히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1, 2학년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글교육 시간이 27차시(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68차시 내외(2015 개정 교육과정)로 확대됨으로써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하였다.

#### 다. 1, 2학년 수업 시수 순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업 시수를 64시간(주당 1시간 기준) 순증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수업 시수 64시간 증배는 처음부터 안전 교육 시간으로 배정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수 조정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학교에서의 보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수업 시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sup>8)</sup>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초등 1, 2학년에서 매일 5교시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당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2~3시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관한 공청회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수업 시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발달적 특성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수는 주당 1시간(40분 기준) 분량만큼을 증배하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272시간(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36시간(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순증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8) 온정덕(2014), 초등학교 수업 시수 국제비교 및 적정화 방안 연구.

## 라.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안전 교육 강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교육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강조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강했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은 2016년 2월에 일선 학교에 보급된 안전 교육 7대 표준안 및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1, 2학년 학생들이 생활에서의 위험 요소를 알고 위험을 예방하며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내용 체계 및 교수·학습 지침 등을 개발하였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으로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관련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역량과 더불어 대표되는 기능으로 위험을 식별하기, 예방하기,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험 상황을 알리기를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한 생활’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1,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64시간에 걸쳐 편성·운영해야 하며,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과의 영역(대주제)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3~6학년에서는 체육, 실과 등의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을 신설하였고, 모든 교과 활동 과정에서 관련되는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화재 대피 훈련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마.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 개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하고, 모든 학년에서 4가지 영역의 활동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단위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자율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하위 영역은 유지하되,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발휘하고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침을 개선하였다.

#### 바.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과학기술 소양 함양 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소프트웨어(SW)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서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의 정보통신활용 교육 내용을 소프트웨어(SW)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기존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교과의 ICT 활용 중심의 정보 단원을 소프트웨어(SW) 기초 소양 중심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소프트웨어(SW)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놀이처럼 재미있게 17시간 이상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보호 등 정보 윤리 내용도 포함하였다.

제1부

I

II

제2부

I

II

III

IV

부  
록

- MEMO -

- MEMO -

- MEMO -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교육부